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문화 역량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강화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족 내에 존재하는 언어, 문화적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이중적 언어,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언어·문화역량 교육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고 해당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등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또는 대상자 중에 이들을 포함시켜) 부모의 모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그간 거부당해온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고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 결혼이민자 자녀의 특수성에 적합한 언어·문화역량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해당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모국어 교육의 방향과 목표 정립

- 한국사회의 주류언어인 한국어와 주요 외국어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영어, 중국어 등 이외의 언어 교육은 소위 ‘소수언어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다음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소수언어 교육은 그 대상별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이 서로 비교됨.

<표> 소수언어 교육 유형

교육유형	대상	일차적 목표	적절한 추진체계
모어교육	해당 언어 배경의 부모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정체성 확립,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관계 증진	이주민과 자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 단체
언어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일반 아동, 성인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배양	다양한 배경의 아동, 성인이 함께 이용하는 기관, 단체
외국어교육	일반 아동, 성인	해당 언어에 대한 기능적 유능성 확보	일반 기관, 단체

-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가족관계 형성을 우선적 목표로 함.
-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의 목표를 ‘글로벌인재 육성’으로 설정하면서 기능적 유능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정책 방

향은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러한 목표가 언어, 문화적 자질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중층적 장애요인에 직면한 채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에게는 현실성이 낮음.
- 기능적 유능성은 해당 언어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일상적 생활 속에서 언어를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정책의 목표로 설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현재와 같이 기능적 유능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목표 하에서는 자칫 장애요인이 비교적 적고 기능적 유능성 실현에 있어 비교적 우호적 환경에 있는 소수의 가족만이 주요 대상 집단이 되고, 중층적 장애요인에 직면해 기본적인 여건 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낮은 위치를 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모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능적 유능성 이외에 정체성 발달과 가족관계 형성을 교육의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 교육 성격에 맞는 추진체계 정비

- 국제이해교육이나 외국어교육과 같이 일반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와 같이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함.
- 학교와 같이 다양한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기관마다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그것도 언어 배경을 공유하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명확한 구분을 통한 일종의 ‘낙인 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어서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모어 교육은 특정 언어 배경 아동 이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고 학교와 달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일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이민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나 이주민 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

- 현재로서는 이중언어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강사를 양성할 만한 교육과정이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콘텐츠도 미비한 상황에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강사,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 교육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기반 마련
 - 모어강사 내지 이중언어강사 양성기관을 지정, 강사양성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중언어강사 대상 재교육 과정
 - 다양한 언어 포괄, 자녀들의 연령대나 언어 구사 수준 등에 따른 교육과정 정교화
 - 기본적으로 연령대별, 해당언어 구사 수준별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가급적 세분화된 교육과정 개설 지원.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것이 어렵다면, 교육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층, 교육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언어 구사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이들의 발전단계를 따라가면서 교육과정을 확대해가는 것이 대안
 - 특정 언어에 대한 교육 경험 축적을 위해 언어별 모어교육센터기관 내지 이중언어교육센터기관 지정, 교육 과정 체계화, 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 기능 부여

□ 교육기회 확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내지 모국어 교육이 일부에서 시

행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지역적으로, 언어별로 교육 기회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결혼이민자 언어, 문화적 배경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특정 언어, 문화 배경 결혼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중언어교육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포괄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임.

※ 일본 효고켄이나 오사카후: 특정 언어 사용자 집중 분포 지역, 학교에 특정언어 전담 교·강사 배치, 특정 언어 사용자 산재 지역에는 센터기관에서 강사 파견하거나 전담 교·강사가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근 지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자원 연계 체계 통해 접근

- 특정 언어 배경 결혼이민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언어를 강사 배치
- 해당 언어 배경 결혼이민자가 적은 주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당 언어 배경 부모의 자녀가 재학 중인 인근의 학교 등에서 이를 함께 활용

- 결혼이민자가 수적으로 많지 않은 언어에 대해서는 광역단위의 센터 기관을 지정해 센터 기관에서 강사를 확보하고 강사를 필요로 하는 주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등에 파견하거나 온라인 교육 활용

□ 중도입국자녀의 언어·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및 활동 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
 - 부모 사이의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 이중적 언어,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통상의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달리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중적 언어, 문화적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소위 ‘뿌리가 옮겨 심어진’ 경험을 한 이들임.
 - 이주 후에도 가족 내에서는 언어,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외국인 아동과

- 비교해도 부모의 재혼과 이주로 인해 가족 내외의 제반 환경에 있어 보다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상당한 혼란에 직면하기 쉽고 학업성취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한국사회에서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는 통상적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모어교육 접근과는 달리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한 접근이 요구됨.
 - 개별 언어별로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베트남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 ‘중국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 특정 국적 출신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아동 집주지역의 학교를 통해 해당 언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언어, 문화적 역량을 토대로 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 추진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의 대상 범위를 중도입국자녀까지 확대
 - 언어, 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사회활동, 경제활동 분야, 진출 지원 체계 확립
 -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중적인 언어, 문화 배경을 위한 이들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 대학교육 차원에서 이중언어교육, 모국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전공 과정 개설되도록 지원

3. 정책효과

- ☐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 관계 활성화
-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문화적 역량 발달 기회 제공
- ☐ 중도입국자녀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대응력 강화
- ☐ 다문화가족 자녀의 능동적 사회통합 가능성 제고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팀), 지방자치단체
